총장 임동선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1960년대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교회가 성장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열정적이면서도 순수하며 종교성이 강한 한국의 종교문화의 토양위에 1960년대 이후에 불어온 부흥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성경연구, 기도회, 선교회, 구역회, 친교활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태동한 "교회 성장론"도 한국교회의 양적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도 정치적으로 5.16을 비롯하여 유신체제, 10.26, 12.12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복지감을 마련해 주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도 "분배정의"의 문제와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사회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한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60년대에서 70년대 까지 두자리 수 이상의 교회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변상황은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단일한 가치와 이념이 개인과 국가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떤 하나의 가치나 이념 보다는 다양한 가치관들과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기독교의 유일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회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동안 교회를 통해 얻어왔던 안정감과 복지감을 다른 대체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어 여가산업과 유흥산업등이 대단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주위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으며 젊은이들은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활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는 교세확장과 교파 분열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여줌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점점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것이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인간들은
개인화와 인간성의
상실등으로 오히려
영적인 기갈과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장이 둔화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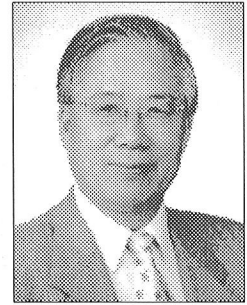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90년대도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사이버 세계의 등장을 통하여 모든 것이 어떤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지구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면서도 사회적인 사조는 "포스트 모던" 사회로 지칭되는 불특정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21세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변화가 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컴퓨터를 통한 가상공간(사이버 세계)은 더욱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우주과학의 발전은 지구촌 시대에서 '우주촌' 시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성이 무너지고 극도의 개인화와 더불어 오히려 사람들보다는 기계와 더불어 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인간들은 개인화와 인간성의 상실등으로 오히려 영적인 기갈과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세기의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면서 비젼을 새롭게 제시하고 상황에 맞는 리더쉽을 재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907년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은 그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문맹을 퇴치하고 의료사업을 통해 인간에게 복지를 주고 잠자고 있던 국민들을 깨워 개화시킴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빛을 던져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의 새벽기도회 창설등을 비롯하여 뜨거운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지났지만 영적인 원리는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섬김과 돌봄으로 사회에 빛을 던져주고, 특별히 영적인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기 쉬운 21세기의 인간들을 위해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과거 어느때보다 추수할 것이 많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개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10 여년 동안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동양선교교회와 여러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지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사명감으로 재무장하여 현장에 나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군으로 최선을 다해 땀흘리며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수고와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교회의 역군이 될 우리 월드미션대학교의 학생들은 21세기의 상황에 민감하여 시대를 앞서가며 시대를 옳게 분변하는 선지자요, 선각자가 될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세계교회를 바르게 지도해 나갈 21세기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9. 3.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관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oteriology of John Calvin and John Wesley-

이 정 근 교수
(본교 대학원장)

■ 서　론

기독교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란 말로 그 전체가 요약된다. 동시에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要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피조물 가운데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며(창1:26-28)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이기 때문이다(시8:5).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가 여럿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신학이 사용해온 "구원"(救援, salv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제1장 구원론과 현대 목회

목회는 좁은 의미로는 영혼을 돌보는 일(pastoral care, Seelsorge)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역자(minister)가 하는 모든 일 곧 교역(敎役, ministry)을 말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설교, 선교, 전도, 교육, 심방, 예배와 의식, 상담, 사회봉사, 공동체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뜻한다. (염필형,실천신학,1995, 241).

그런데 교역자들의 목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와 그 목표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역자의 왕주(王主, the King and the Lord) 되시기 때문이다. 그 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다(골1:18).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 "예수"가 의미하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마1:21)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 "잃어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단언하셨다(눅19:10).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런 구원사역(ministry of salvation)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 성경적인 구원관은 도외시 되었고 구원문제를 신학의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옮겨지고 말았다.

■ 제2장 구원에 관한 여러 주장들

우선 기독교에서 양적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로마 카톨릭교회는 오랫 동안 "교회밖에 구원 없다"(salus extra eclesiam non est)는 주장을 펴 왔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회론 중심의 구원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교회가 천국열쇠를 위임받았음(마16:19)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카톨릭교회는 구원받기 위한 은혜는 교회가 베푸는 성례전을 통하여 받게 된다. 또한 로마카톨릭교회는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과 선행"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선행을 하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게 된다. 여기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으며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anonymous Christians)이라고 칼 라너(Karl Rahner)는 이름 붙였다.(Erickson, Concise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1986, 12).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과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Pelagius, ca. 360-420)와의 신학논쟁은 구원론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펠라기우스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기독교가 정통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거스틴의 구원론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구원론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은 그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가가 한 번은 주장했어야 할 일이었다. 비록 그의 주장이 에베소 공회의(431)에서 이단학설로 정죄되기는 하였으나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 두 사람은 신학논쟁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중심의 구원론을 전개했던 데 반하여 펠라기우스는 인간중심의 구원론을 전개했다(Wynkoop, Foundations of Wesleyan-Arminian Theology, 1967, 28,29)

복음주의라 하면 대체로 16세기 교회개혁(Reformation)신

〈도표1〉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항 목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타락의 영향범위	아담	온 인류
원죄	없다	있다
원죄유전	없다	있다
인간 탄생시	죄에 대하여 중립	타락한 성품으로
인간의 의지	완전 자유	죄의 노예
죄의 보편성 연원	아담의 나쁜 선례	본성적 죄성에서
구원	인간의 자기결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학의 기초 위에서 전개되는 신학적 입장을 말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의 특색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성경중심, 2) 그리스도 중심, 3) 구원중심, 4) 복음전파 중심이 그것들이다.

이같은 복음주의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fundamentalism)과 자유주의 신학(liberalism)을 둘 다 부정하면서 교회목회의 현장으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아 왔고 이십세기 후반에 널리 확산되어 왔다. 복음주의신학은 구원론에 있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엡2:8, 개역개정판)라는 말씀에 기초한 구원론을 주창하고 있다. 구원은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그리고 믿음만으로(sola fide) 받게 될 뿐 행위 특히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하고 있다.(Davis, Foundations of Evangelical Theology, 1984, 23).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부인했으며 영혼의 존재 대신 이성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다. 따라서 구원은 신학의 주제로부터 실종되었으며 도덕적 윤리적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해방의 신학자(theology of liberation, 흑인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포함)은 인간소외(alienation)를 죄악의 본질로 보았으며 따라서 인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구원의 핵심과제로 삼았다. 말하자면 영혼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육신구원과 사회구원이 구원론의 중심이었다.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개개인이 실존(existence)으로서의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유 안에서 결단하며 생을 이끌어 가는 참된 생활(authentic life)을 하는 데서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속신학(secular theology)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숙한 인간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Erickson, Christian Theology, 1983, 891-905).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구원론의 여러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인간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는 이원론(dichotomism)에서는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지게 된다. 인간을 육(flesh)과 혼(soul), 영(spirit)의 셋으로 보는 삼원론(trichotomism)에서는 영만 구원받는지 혹은 혼도 구원받는지 또 그렇다면 언제 구원받는지 등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로 보는 일원론(monism)은 현대심리학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들은 영혼의 존재보다는 정신현상을 육신의 기능으로 보게 되며 영혼불멸설에 대한 확신이 없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구원론의 중요과제로 삼는다.

■ 제3장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원론의 양대산맥은 절대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다. 절대예정론(absolute predestination)은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정점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이루어 진다는 주장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론(free will theory)은 아르미니우스(James Arminius, 1560-1609)/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를 정점으로 하는 것으로 인간의 구원은 인간 자신의 결단에 걸려 있다는 주장이다. 앞의 것은 신적 단동설(divine monergism)이라 할 수 있고 뒤의 것은 인적 단동설(human monergism)이라고 할 수 있다.

1.신적 단동설

칼빈은 그의 필생의 신학적 저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택에 의해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단언함으로써(제4권 제21장) 이중예정론(double predestination)을 거리낌 없이 주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떤 피조물은 짐승으로 만드신 것처럼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별하여 지으신 것이 아무 것도 이상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성경적 근거로는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으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사실(롬9:6-13),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는 말씀 등이다.

2.인적 단동설

단동설(monergism)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신적 단동설을 말해 왔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온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구원받는다고 역설하였으므로 단동설을 둘로 나누어 신적 단동설과 인적 단동설로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앞서 소개한 대로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인간의 완전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예정에 의한 구원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로 보았기 때문에(Erickson, 1983, 909) 인적 단동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인적 단동설은 정죄되었으며 심지어 신인협동설(synergism)조차도 그 후 529년 열린 공회의에서 거부

〈도표2〉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구원론 대조표**

항 목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T	전적 타락	전적 타락
U	무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
L	제한적 속죄	만인속죄론
I	불가항력적 은혜	가항력적 은혜
P	성도의 견인	성도의 중도타락 가능

되었다(Erickson, 1983, 911).

그런데 칼빈과 그의 제자 베자(Beza)가 극단의 이중예정설을 주창했을 때에는 아르미니우스 등이 적극 반대에 나섰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범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죄의 제조자(the author of sin)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사상가,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자, 펠라기우스의 후계자, 반(半)펠라기우스주의자, 혹은 이와는 달리 복음주의의 대표적 신학자로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다(Bangs, Arminius, 1985, Preface). 분명한 것은 그도 네델란드의 대표적 목회자요 신학자였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는 펠라기우스와 달리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함으로써 인본주의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3. 두 신학적 입장의 대조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의 5대교리(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 하여 튤립(TULIP)라는 말로 구원론 교리를 요약해 왔다(Palmer, 1972, Forword). 이에 맞서 아르미니우스도 역시 반대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제 이를 도표로 표시해 보기로 하자.

이같은 구원신학의 차이는 하나님 이해에서 시작된 것이다. 칼빈과 그 후속자들은 하나님을 능력(power)이라는 관점에서 절대주권자(sovereignty of God)로서 강조한데 반하여 아르미니우스/웨슬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사랑(love)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4. 두 입장을 종합하려는 노력

모든 신학이론이 그렇듯이 절대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이나 완벽한 것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 두 대립되는 이론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어 왔다.

안셈(Anselm, 1033-1190)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의 자유의 폭이 범죄하는 자보다 넓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토마스 아퀴너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반의지(general will)와 특정한 사람만 선택하시는 특별의지(special will)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은 이 문제로 많은 씨름을 한 끝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롬8:29)라는 말씀대로 예지예정론(predestination based upon God's foreknowledge of what man will do)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Erickson,1983, 912).

절대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사이의 간격을 현격하게 좁힌 사람은 요한 웨슬리였다. 웨슬리는 전도자요 목회자였다. 그리고 신학을 사변적으로 하기보다는 목회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전개해 나갔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선행은혜론(prevenient grace)을 제기함으로써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보편적 은혜론(common grace)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신적 단동설의 구조 속에서의 협동설"(synergism in the frame of monergism) 곧 복음적 협동론(evangelical synergism)을 주장함으로써 칼빈주의에 한결 가까워 지게 되었다(조종남, 1993, 166). 다시 말하면 완전타락한 자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 구원에 이르느냐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일차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선행은혜론은 확고한 성경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약점이기는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을 모순과 대립으로 파악하여 온 것에 비하면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진 셈이 된다.

자유의지론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은 칼빈주의 후예들에게서도 끊임없이 있어 왔다. 영국 웨일즈지방의 장로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준수하면서도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받아들임으로서 칼빈주의적 감리교도(Calvinistic Methodism)이라 불리고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칼빈주의의 후예였다. 그러나 그는 칼빈주의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수정함으로써 자유의지론과의 거리를 좁혔다.

1) 하나님이 예정에 의하여 선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3) 하나님은 선택할 권한이 있으시므로 선택된 자를 버리실 권한도 있으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그는 유기(reprobation)가 포함된 이중예정설과 기계적 예정론의 결과인 성도들의 궁극 구원을 상당부분 수정하

기도 했다.

■ 제4장 누가복음 15장의 구원신학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는

〈도표3〉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 분석**

항 목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세째 비유
주인공	목자	온 인류	아버지
잃은 대상	양(동물)	돈(무생물)	아들(인간)
잃은 분량	100분의 1(1%)	10분의 1(10%)	절반(50%)
구원 과정	목자의 부름과 양의 대답	여자의 발견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구원 모형	완전 자유	무조건적 선택론	자유의 지론
대표적 인물	삭개오, 베드로, 마태	바울, 나사로 나면서 장님	니고데모, 나다니엘

것은 심지어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 주창자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란 누구나 잘 아는대로 1)잃은 양의 비유(4-7), 2)잃은 돈의 비유(8-10), 3)잃은 아들의 비유(11-32)이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목회현장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누가복음 기록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림받은 자들"(outcasts) 곧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죄인"이란 주로 창녀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정통성을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로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실 목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인다.

비유의 해석에는 일반적으로 단일비유의 관점(one single point of comparison)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을 황금률로 삼아 왔다(Ramm,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1970, 283).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잃은 자를 찾아낸 주인의 기쁨"으로 요약된다.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비유를 비교하여 연구하여 보면 매우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다. 다음의 도표를 보자.

위와 같이 분석하여 볼 때에 절대예정론자나 자유의지론자들이 결정적인 과오가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구원론을 완전히 획일적으로만 이해했다는 점이다.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은 획일적이거나 단일원리(mono-principle)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무시하여 왔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잃은 양처럼, 또 어떤 사람은 잃은 돈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잃은 아들처럼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이다. 과거의 신학이 너무 하나님을 상태적(static)으로 이해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매우 역동적(dynamic)이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렘33:2)이신 분이시다. 따라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일백 사람이면 일백 가지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에 건널 수 없이 벌어져 있던 격차가 어떻게 좁혀져 왔고 급기야 누가복음 15장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합치되는가를 보게 된다.

■ 결 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오랫 동안 논쟁되어 왔던 구원신학에 있어서 절대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대립(thesis-antithesis)에서 종합(synthesis)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을 발견했다. 과거의 신학이 구원문제를 너무 획일적인 한 원리에 의하여 논리를 전개한 데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길이 전혀 없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잃은 양" 처럼 구원받는 사람, "잃은 돈" 처럼 구원받는 사람, "잃은 아들" 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의세 비유에서 이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구원신학은 성경 전체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앞서 확인했다. 현상학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나 주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나면서 장님된 자,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등은 신적 단동론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는 인적 단동론에 의하여 구원받기도 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청년(마19:16-22)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허지만 삭개오, 빌립보 감옥의 간수, 베드로, 안드레, 마태 등등 많은 인물들은 신인협동론이 적용될만한 사례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점에서 복음적 협동론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현대의 목회자일수록 영혼구원의 과정을 획일화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하겠다. 현대사회가 무섭게 다양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더 그렇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있는 것으로 참고할 것).

Integration : Faith and Learning in the Theological School Education

「신학교육에서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

김 영 배 목사
(교무처장)

From time to time, we as participants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face such queries as : "Why do I have to take philosophy or sociology?" or "What does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to do with being a Christian or Christian leader?" Or even more so, "This school is liberal, they make everyone take psychology."

As academic deans we have all faced inquiries of students, both current and prospective, "Why we have general education in the theological school." More importantly, how does the Christian educator in the theological schools integrate faith and learning so as to provide the student with a theological sound, uncompromised Christian perspective while still managing to engage the subject on an intensive academic level that is consistent with the constraints of the academic discipline? This is the essence of the faith and learning integration discussion.

The Christian community since its inception has continuously been challenged by this issue. How inculturated can Christians become before they compromise their faith? More specifically, can members of both the Christian and academic community maintain both sets of core essentials for remaining as members in those communities? As Nicholas Wolterstorff said in his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 "The Christian who is a scholar finds himself in two communities: The community of his fellow Christians and the community of his fellow scholars." In the theological schools, how can these two communities become, in effect, a singular voice?

In defending his ministry to the Corinthian congregation, Apostle Paul asserted, "Are we destroying specuations and every lofty thing raised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we are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2 Cor. 10:5, NASB). But just how does one engage in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 Some early church authorities argued that it was by academic isolationism, or in essence dis-integrating the curriculum of Christian education.

If it is so, then my concern is that curricular dis-integration produces a fragmented perception of reality and also facilitates the compartmentalization of faith, which diminishes the potential for spiritual formation and authentic Christian witness in the world. If this kind of practices are allowed in Christian schools, then it would become a huge concern of many people for the students entrusted to us to mature, equip, and prepare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Faith-Learning Integration: An Evangelical Distinctive

Wherein is truth found?

This is the core issue of the faith-learning integration discussion. Regarding the value placed on general and special revelation, Christian scholars in the academic disciplines are torn between the polarized positions of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on one hand vs. "General revelation is a legitimate source of truth" on the other. The similar extremes of "Not ompromising biblical truth with the scientic theory" vs. the "cautious use of modern theories and methods regulated by biblical theory and Christian world view" echo the same controversy. This has produced the familiar debate between the "Biblical Counseling" vs. "Christian Counseling with psychology as useful tools." In short, it is the extremism of "no integration is possible" vs.

regarding integration as both biblical and necessary.

The Bible itself attests to the necessity and practice of integrating faith and those disciplines that are seemingly distant from theological inquiry.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readily demonstrates this point. The O.T. wisdom writers shared a common intellectual tradition with current Near Easten culture, from which they gleaned wisdom and which they adapted to their faith in Yahweh(Prov. 31:1-9, 30:1-33, 22:17-24, etc.).

In the 19th century, faith-leaning integration was a simple and pleasant relationship for the Christian academic. However, two advents occurred in higher education during the later half of that century: Darwinism and German High criticism of the biblical text.

The results of their arrivals, "Design without a Designer," "Revelation without a Revealer." The complexity of the issues grew exponentially. In the wake of this transformation, evangelical colleges did not go out of existence. They did in effect go underground. Education in the evangelical Christian colleges became culturally and socially disembodied. Concerns for faith-learning integration waned under the call for anti-intellectualism. Fundamentalists argued this as a reaction to how academic and cultural elements that were seemingly incompatible and corruptible to the Christian world view.

By limiting the relevant revelation to Scripture alone, and isolating themselves from academic dialogue, fundamentalists soon rejected the notion of faith-learning. However, interest, as well as the necessity, of faith-learning integration did not become extinct in the Christian education community.

A renewed sense of interest i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became prevalent in 50's and on, and continues into the turn of the millenium.

Paradigm for Faith-Learning Integration

Integration is not simply synonymous with interdisciplinary studies, since it implies an innate change in the very fabric of the subject being studied. In his Philosophy and Education Knight maintains, "The teaching of any topic in a Christian school is not a modification of the approach used in non-Christian schools. It is rather a radical reorientation of that topic within the philosophical framework of Christianity.

Several paradigms for faith-learning integration have been advanced in recent decades, and have been surveyed and critiqued on numerous occasions. However, in general, most of the paradigms either place faith in the context of learning, or learning in the context of faith, and not both together in a context in which both can co-exist in dialogue.

Richard Niebuhr's Christ and Culture provides a survey of the historic relationships of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ulture in which it exists. In this survey, Niebuhr presents five possible relationships the church and culture have shared throughout the history of Christianity. They are as follows (not in his original order, though):

(1) Christ against Culture - Separatistic;
(2) Christ of Culture - Accommodation;
(3) Christ above culture - Synthesis;
(4)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 Dualism; and
(5)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 Conversion

To the item (5) he affixes the most value, prominence and hope for the advancement of Christianity.

Others have made use of Niebuhr's paradigm as a faith-learning integration paradigm,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psychology. Niebuhr's conversion model provides an approach for the transforming academic discipline into an innate part of the faith community's higher

education endeavors. Hence, this approach would bear similarity to the transformationalist approach defined by other faith-learning integration theorists.

The transformationist's approach claims that the genuine integration occurs when an assumption or concern can be shown to be internally shared by both the Judaeo-Christian vision and an academic iscipline.

Faith-Learning Integration Opportunities

The opportunities that would facilitate faith-learning integration include those of academic, philosophical, spiritual, and pastoral value. The following are some of such potential benefits:

◆ Faith must find expression in every avenue of life and thought, and to restrict faith from any field of study is to deny God's place in it.

◆ The opportunity to broaden the Church's ministry through Christian's participating in the academic discipline is part of the macro-vision for evangelism. Faith-learning integration makes the purpose of Christian academics comparable to the Church's responsibility for evangelism and mission.

◆ If we can present our students an integrated view of reality, wherein our faith and God are intrinsic to every field of study in every academic discipline, then faith ceases to be compartmentalized and irrelevant in certain contexts and the students' potential for spiritual formation increases. Then we must endeavor to fulfill the faith-learning integration mandate. As Paul said,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

Closing Thoughts

With the above presentation filled with choices—symbol or substance, fragmentation or holism, academic absence or presence, relevance or irrelevance, and disintegration or integration, the following should be further emphasized above all the efforts to realize the faith-learning integration processes: Make the Christian Education A High Impact Teaching!

As the teacher bears greater responsibilities in fulfilling the faith-learning integration, in order to make every academic discipline being taught pleasing to God, World Mission University's professors must participate in and practice the following strategies:

A. Teaching that Glorifies God:

Teacher must reflect the glory of God in life and teaching.

B. Teaching that Changes Lives: Teaching to the conscience; Teaching for commitment.

C. **Teaching that Equips Students for:** A life of victory; A life of effective service

D. God has to do the **Teaching** through us: Get your lessons from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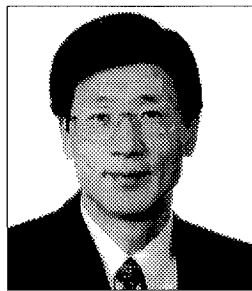
This insures teaching with **authority;**

This insures **fruits/changed lives.**

In conclusion, as we are merging into the new millenium, for the life-changing Christian education ministry, we should launch a campaign for all our undergraduate and seminary programs:

The Slogan: 『COMBINING FAITH and OWLEDGE - WMU 2000!』

※ Not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uthor is gratefully indebted to Dr. James Riley Estep of Great Lakes Christian College, for his contribution to the cognitive development on this subject.

우리의 사명

김 진 광 목사
(본교 교수겸 사무처장)

삶이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면 영원히 계속되는 가치관을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것은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독특하게 형성(SHAPE) 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독특한 형성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무가치한것들이 되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삶의 비결은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17:4.**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또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나의 평생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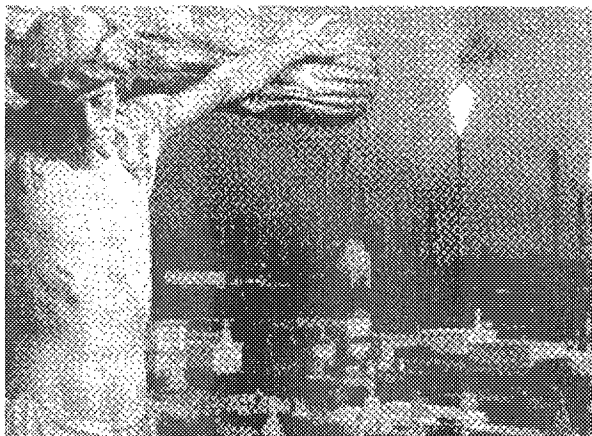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평생 사역을 발견하는 방법은 추측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추측하고 노력합니다. 철학에서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5:17

1. 내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 물음에서 부터 출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 나의 모든 삶이 계획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 삶이 무엇을 중심하여 이루어져 있습니까?경력입니까? 가정입니까? 공부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이와같은 것들은 하나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므로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22:37

잠언9장10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것을 아는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삶의 목적에 대해 오직 추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것을 이해 하도록 도와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2. 내 삶의 성품이 어떠해야 할것 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8:29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2:5

3. 내 삶으로 기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받기만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내 삶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여 이 세상이 좀더 나은곳이 되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애를 통하여 기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형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만드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2:10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누고 베푸므로 삶을 보람차게 합니다.

풍요한 삶은 풍요하게 줌으로서 이루어 지는것 입니다.

4. 내 삶은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내 평생 삶의 메세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소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해야될 독특한 말들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 메세지는 나의 형성(영적은사, 마음, 능력, 개성, 경험)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자 하는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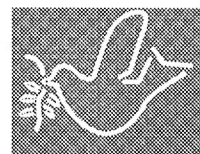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행20:24

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늘 나라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러나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십대소년 두 명이 교회의 천막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알아보려고 왔는데 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돌아 가려고 하려는데 안내하는분이 의자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며 그 두소년을 위해 의자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저녁 그들은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메세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래디 윌슨(Grady Wilson)과 빌리 그래함(Bill Graham) 이었습니다.

빌리 그래함에게 의자를 제공했던 그 안내원이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월드미션대학교로 우리를 보내신 부르심의 의미와 우리들이 감당 해야할 새로운 21세기의 세계선교의 복음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해본다. *

교수 논단

신학의 중심

김 성 원 교수
(본교 조직신학교수)

저는 이 지면을 빌어 신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학은 신학자만큼 수가 많고, 또 다양하며 서로 상반되기까지 합니다. 거의 모든 주제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는 성령론의 주제들에 있어서 장로교신학의 관점과 오순절신학의 관점은 많은 점에서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구절을 서로의 신학관점과 경험에 맞게 해석하다보니 전혀 다른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 혹은 중심을 갖는가 하는 것이 신학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형 전체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산의 정상과도 같이 신학전반을 향한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신학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 각각의 때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초기의 신학은 주님을 만난 사도들의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여, 어느 사도 밑에서 배웠느니, 또 베드로의 후계자니 하면서 역사적 연관과 경험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카톨릭신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성과, 그 자취인 역사적 전승과 전통이 신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동안 공교회로 불려온 이 카톨릭 신학에 반기를 든 것이 개신교의 신학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된 말씀, 또 계시된 말씀에 담기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재발견하여 성경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의 후예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식의 관점을 고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단어 하나 하나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또 성경전체를 교리와 윤리 교과서로 생각하여 교리와 윤리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주의, 또한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나친 문자주의에 대해 반대자들은 결국 이들도 "종이의 교황"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조한 문자주의에 반발하여 나타난 경향이 개개 신앙인이 하나님을 체험하게된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한 체험적인 신학이었습니다. 이것이 꽃피우고 열매맺은 것이 오순절 운동과 오순절 신학이라 하겠습니다. 한 편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은 또 하나의 신학의 중심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는데, 그것은 합리성의 원리입니다. 이성은 사실 신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로부터 이성은 중심적인 신학의 원리였습니다.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그들은 이성의 논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러한 신학의 원리들이 보여 주었던 유용성만큼이나 이들 각각이 가진 한계와 무리함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 하나의 관점들은 매우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학이 그동안 발견하고 사용한 이들 원리들을 존중하고 적용하여야 하지만, 그 각각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들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성의 중심은 교권주의를 낳았고, 말씀의 중심은 정통주의나 문자주의로, 경험의 중심은 주관주의나 체험주의로, 그리고 이성의 중심은 자유주의로 흘러 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원리 중 하나를 그저 추종한다면 동일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를 하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치우침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실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러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필요와 시대의 정신에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좋게 말하자면 변증법적으로, 다르게 말해 좌충우돌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불변적으로 계시되었으나, 어떤 진리는 점진적으로 계시된다는 사상이 우리에게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성의 범위 내에서도, 시대정신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에 따라서는 개선하고 수정할 점들을 발견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수천년 묵은 신학이 새로이 맞는 과제이며,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오류를 발견하고 극복하며, 어떠한 중심으로 신학을 하여야 진리의 전모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단지 부분적인 강조점을 넘어서도록 하는 신학의 참된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요한 웨슬레의 종합을 떠올리게 됩니다. 위에서 논한 신학의 개별적 관점들을 고려한 후에 그는 이 들 모두가 유용한 신학의 원천이요 권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경, 경험, 이성, 전통 이 네 가지 모두가 말입니다. 이것은 탁월한 종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이단이란

치우친 진리의 절대화이며, 또 부분의 진리가 잡은 사람의 수가 교회의 역사에서 얼마입니까. 웨슬레주의자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종합적 관점은 신학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과 경험과 이성과 전통, 이 모두가 우리 신학에서 균형 있게 고려되고, 권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은 실제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종합이 위대한 경우는 그 종합된 요소들이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그 이질적인 요소들은 체계 내에서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비유하자면 독일의 통일이 그 자체로서 참된 통일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웨슬레의 종합적 시각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 간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웨슬레의 성화론이 지지하는 인간 본성의 성화라는 개념이 그의 개신교적 신념인 인간의 절대적 타락의 신조와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웨슬레는 경험에다가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이 개신교의 뿌리인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의 신조와 경험이 어떻게 조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와 같은 개념은 초기에 매우 강조되다가 후에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의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웨슬레와 감리교 신학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강조점을 갖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토마스 오든이 주장하듯 웨슬레 자신은 성경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위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나, 찰스 피니가 19세기에 본 감리교도들은 주로 체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목사안수과정이나 교과과정을 들여다 볼 때 오늘날의 미국의 감리교신학은 이성의 원리를 더욱 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모두 수용하고 고려한다는 것만으로는 균형 있는 신학과 신학의 전체적 조망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반복하여 지적하듯 이러한 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제약하고 왜곡하기까지 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신학의 중심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존재론적 관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존재론적 관점의 회복이라는 말의 뜻은 신학이 개념이나 사상이나 학문적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로 인식하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관점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관해 분석적, 합리적으로 논하는 전통적인 철학적 존재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틴 하이데거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무엇으로 규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전통적 존재론 연구의 "사물화의 경향"에 반대하여 존재를 존재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슷한 동기를 발견합니다. 그가 존재와 시간에서 진리란 "존재의 자기 현현," 즉 존재가 자기은폐로부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의한 것이 저의 이러한 논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학이 추구하는 진리는 어떤 명제나 개념의 획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데거 식으로 말해 다른 어떤 학문보다 신학은 존재론적 학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학적 진리는 우리가 개념이나 사상으로 체계화하고 교리화시킨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개념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분은 이러한 개념이나 개념들의 종합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좋은 예가 성령신학의 어려움입니다. 죠지 헨드리는 그의 뛰어난 책 기독교 신학과 성령에서 성령론이 신학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말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라는 관점을 피력합니다. 그는 성령님을 "산소관"으로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은 신학이 "조직"이나 "교리"의 갑옷들 속에서 질식되지 않게 호흡을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은 존재를 다루고 있으며, 어떤 책도 존재와는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들의 연합으로도 포괄될 수 없는 것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독교 신학 안에 있는 다양성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만일 조직신학이나 변증론의 체계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정통주의가 되고, 하이데거가 통렬하게 비판한 것처럼 존재를 하나의 사물로 격하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의 체계를 통해 그것을 가르치신 존재를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가르침을 볼 때 그것을 쓰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적과 경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승과 전통을 통해서 역사의 주가 되시고 그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신학도 있는 가고 혹자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체계나 책이나 합리성이나 경험이나 역사적인 전승을 최종적이거나 유일한 신학의 권위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사들이 신약의 도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이상의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발견한 "부분의 진리"를 절대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시각에서 신학 하는 이들

에게는 각각의 신학원리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동일시되거나 신학의 궁극적 권위는 될 수 없고, 다만 그 분의 존재를 발견하는 고귀한 창문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각각의 원리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창문들이요 방법적 원리들입니다.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존재론적 신학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네 개의 창을 통해 올려다 볼 때 발견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존재를 특정 존재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 철학자 하이데거와 결별합니다. 우리는 그 창 너머로 인격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이 당신의 파트너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간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의 중심 이 두 존재자들이 우리의 신학을 주도하는 존재론적인 단위들이요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인격을 이어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의 창을 열어 보십시다. 성경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 어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율법의 요약과 완성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의와 심판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가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완결된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교제의 회복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메시지이며 아가서를 정경에 있게 했던 관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성경해석의 원리를 이성이나 논리나 어떤 학적 원리가 아닌 사랑으로 세웠던 것은 아닐까요?

또 우리 경험의 창을 열어보십시다.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하게 합니까? 그것은 죄사함입니까? 지옥을 면하는 것입니까? 영생입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아닐까요? 때로 인격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랑을 잊어버릴 때면, 전도도, 새벽기도도, QT도 성경공부도 제자훈련도 은사도 모두가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법의 집행자로 이해하고 그 앞에 죄의식으로 몸부림치던 수도사 루터가 추구했던, 그리고 후에 그 자체로서는 무용함을 깨달았던 그 "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점을 취할 때 이 모든 것은 은총이요 기쁨이 됩니다. 전도도, 새벽기도도, QT도 성경공부도 제자훈련도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오는 통로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은사나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참 뜻을 얻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와 칭의의 불같은 설교로 50여만 명을 회개시킨 찰스 피니였지만 그가 나중에 발견한 최고의 체험은 하나님과의 하나된 사랑의 교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그 때 그는 이전의 설교들이 초보적인 도에 관한 것이었음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을 보십시다. 웨슬레가 의미한 전통이란 초대교부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 들의 신앙의 유산을 말합니다. 또 실제에 있어서는 그가 속한 교회의 법과 양식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본받고 그것을 계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편견 없이 역사와 전통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을 때 그가 거기에서 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기독자의 완전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윤리적인 완전주의의 율법적인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존재론적 신학의 중심이 되는 사랑을 기독자의 완전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학을 종교개혁자들의 두려움의 신학으로부터 참된 신학의 중심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한 존재론적 깨달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창을 열어보십시다. 신학지식이 창궐한 시대는 흔히 다툼과 정죄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위에 설 때 놀라운 부흥과 든든함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성이 사랑이라는 더 큰 진리를 떠날 때 진리의 이름으로 엄청난 오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대 독일의 철학적 지성이 나치즘과 유태인학살 앞에서 침묵한 역사는 참으로 소위 "존재론적 이성"의 불완전함을 웅변합니다. 존재로 돌아가자던 하이데거가 극우민족주의로 귀착하고 나치 치하에서 국립대의 학장을 지냈다는 사실은 심지어 희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성은 임마누엘 칸트가 믿던 것처럼 경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리의 대법정이 될 수 없습니다.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은 철학적으로는 이성의 절대성에 대한 이러한 타당한 반론입니다. 물론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염려하며 제안하듯 그럼에도 우리는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자연적 이성이 진리의 최고법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몽주의시대의 무의미한 두 전쟁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결국은 죄된 죄된 욕망을 경배하는데 사용된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성의 문명체계는 근원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구인 이성에 존재론적인 자율성을 주어 거기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론적 토대입니다. 사랑의 영을 잃을 때 이

성은 의학적 탐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산채로 얼리던 제국주의 일본군 군의관의 냉혹한 눈초리를 언제라도 다시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 신학이 존재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과 교제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묵상하든, 교회의 전승을 어떻게 이해하든, 어떤 사변으로 진리의 대계를 수립코자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과의 친교의 회복이라는 의미에서의 구속사적 시각에 신학을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학 속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서로 나눌 수 없이 하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류에게 회복해 주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개개의 영혼과 교회에 내주하심으로 참된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구속의 사역이요 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른 모습으로 현현하셨지만, 그러나 일관된 사랑이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웅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 일서 1:3)

이 글을 마치기 전에 이 시대에 밝혀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진리, 성령론적 진리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운동과 신오순절운동은 성령님의 실제적 임재를 증언하기 시작하였으며, 경험의 신학적 중요성에 관해서도 새로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들 운동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이론이 아니며 경험이 되어야만 할 것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교제란 참된 앎을 가져다주는 방식이며 그것은 경험을 전제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앎이란 이처럼 존재론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한 아바 아버지란 이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연구의 지식이 교제의 지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려는 신학도들은 그 내밀한 교제의 체험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의 역사에서 정죄당하고 오해되었던 것처럼 신비주의나 이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본질적 사역이며,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으로서는 될 수 없었던 것이며,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각성 앞에서 전래의 신학들은 고심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붙드는 신학적 관점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내적 임재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으로서 구속사의 완성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학도로서 루터가 생명을 걸고 찾아다준 그리스도의 절대적 공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혜의 칭의의 사상 위에 뿌리내리고 서야 하며, 캘빈이 일생을 투자했던 성경신학의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루터와 캘빈의 시대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계급주의적 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과학정신이 비로소 눈뜨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연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중세의 초자연주의를 극복하면서 참된 영성도 경시하는 계몽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더욱 깊은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이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와 같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새롭게 존재의 유기적 일체성을 학문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내적 임재를 이해할 만한 경험의 축적과 이성의 개방성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교제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구속사의 완성에 다가가는 것이요, 우리 시대에 주어진 부르심의 특권이요 신학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17)

이제 얘기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교제의 회복이라는 구속사의 관점을 중심으로하는 존재론적 신학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는 건전한 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웨슬레가 말한 4 가지 중 어디에서 출발하였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중심을 붙든다면 부분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하여 다른 신학의 원천과 권위들을 받아 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것들의 한계도 직시하는 건전한 신학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학은 진리의 전모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러한 중심만이 도를 더해가는 세속 속에서, 또 이성이 왕좌를 내놓은 문명의 공백으로 다음 세기에 봇물 터지듯 밀려들어올 숱한 종류의 영성들의 외침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고,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넉넉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

내가 진정 하고싶은 것

조 항 목
(M. Div과정 · 학생회장)

벌써 신학교에 들어 온지가 2년이 다 돼 간다. 신학교에 들어 올때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 목회를 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신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몇가지 하고싶은 일들이 있었다.

우선 성경을 많이 읽고 싶었다. 그 말씀속에 푹 젖어있고 싶었다. 그동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무언가 모르는 갈급함,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있게 배워서 갈급함을 채우고 싶었다.기도를 하고싶었고 깊이있는 Q.T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다.

그런데 2년이 다 된 지금 돌이켜보면 어느것 한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성경을 읽어도 필요에 의해서 읽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리포트를 쓰거나 학업을 위해서 읽게되어 말씀에 깊이 젖을 틈이 없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찮가지다.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다보니 마음먹고 무릅을 꿇을 틈을 못내는 것이다. 기도원이나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기보다는 잠시 잠시 쪼기리 시간에 잠깐 잠깐 눈감고 '하나님 땡큐' 하고 일어나곤 한다. 그러니 Q.T를 여유있게 할 틈조차도 없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때에도 주석책 몇가지 드려다보고 예화집 찾아보고 순서를 나열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전한다.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만 싶고, 무슨 말인지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았던 첫사랑의 감미로왔던 그 순간들을 주님과도 지속적으로 갖고 싶었다. 그 사랑에 취해서 이렇게 신학교로 뛰어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난 후로부터 뜨거웠던 마음과는 달리 주경야독으로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지나간다. 사랑의 고백도, 깊은대화도, 들려주시는 말씀의 묵상도 더 힘들어진 것이다. 일터로, 학교로, 도서관으로, 집으로, 교회로 바삐 뛰어다니며 가끔생각한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책꽂이를 보니 그동안 읽고 배운 책들이 적지는 않다.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선교학 목회학 실천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책을 보면 그동안 배운 것이 많기는 많은가 보다. 이 모든 것이 졸업을 위한 학점따기 보다는 앞으로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러브레터를 기대했던 내게는 좀 어렵고 힘겨울 것이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보다는 조금은 딱딱한 그 학문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기쁨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앞으로 그런 기쁨도 더 많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힘들어 피곤한 몸으로 잠시 눈을 감을 때, 운전 중에 핸들을 잡은채로 기도할 때, 비록 기도원의 한적한 가운데 깊은 영적 대화는 아닐지라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힘으로 다가와 손 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의 감격은 또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며 기뻐하고, 영원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가슴아파서 울기도 한다. 심지어는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아직도 걸어가야 할 앞길의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세상의 사랑하는 자들은 말한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사랑 앞에 극복못할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싶다. 이겨나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사랑으로 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할수있기를 소원한다.

북방사역의 열매를 맺기위하여 힘써 공부하련다

최 민 선교사

〈소개의 글〉

아래의 글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공부하는 XX 국적 학생 최민 선교사가 학교 와 교회에 올리는 원문이다. 본 학교에서 영적, 지적 배양과 교회의 신앙생활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한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알게된 그는 오늘 변화되어 인생항로의 방향을 바꾸고 하늘나라, "표대"를 향하여 뛰어 가고 있다.

그는 북방사역의 열매를 맺기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고향과 가정을 멀리 두고 남 부러워하는 직업도 버리고 L.A.에 와서 3년간, 빌딩청소 (화장실 청소를 망라한)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밤잠을 아끼며 공부하여 금년 6월에 M.Div. 과정을 마칠 계획중에 있다.

그러는 중에서도 일 년 남짓한 사이에 13차례 북한 사역을 다녀 오는 등 자기 위치에서 할 일에 열성을 보이며, 지금도 XX 지역을 통해 탈북인 구제 선교사역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그가 남다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북방사역에 임하는 것과 그 기초작업을 하나님을 아는 신학공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수있다. 그가 역경을 이기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나설 그때를 기대하면서 아래에 그의 문장 전문을 소개한다.

주님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한 보통 XX 나라 성도인 저를 극진히 돌봐 주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훌륭한 목사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신앙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또, 한 학기 공부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도합 여섯개 과목을 완성하고 "졸업 성경 종합 시험"도 통과했으며 현재 "졸업 종합 시험"도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 신학 공부를 할 수록 재미나고 또, 교회 생활 실천과 결부해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기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저녁 예배에서는 찬송을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몸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쓰라린 과거를 회상하며, 선배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시각 이였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나를 낳아 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도 울지 않은 인간입니다.(아버지가 반동 이여서 어릴 때부터 사회의 배척을 받았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눈물을 흘리다니....' 나로서도 나의 변화에 놀라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되여 지는 모양이구나!..." 저는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성숙에 따라 비젼도 자라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안겨 오며 북방 사역의 사명감에 신심이 더해집니다.

오늘 존경하시는 목사님과 신앙 선배님들께 정중하게 저의 신앙고백과 더불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굳게 믿어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고 분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나에게 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에 있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으로 북방 사역을 위해 깨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M. Div과정을 (실제 3년반 공부함) 기본상 마쳤으므로 새해부터 상급 학위 과정에 들어서려고 신청합니다.(선교 실천도 거치고 M. Div과정을 마치게 되었으므로 원 계획에 1년 반 연기하면 될듯 싶습니다.)

- 공부를 더 할 이유 -

1.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고 비전이 커지면서 자신의 부족 점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오기전 까지만 도(1994년 초) 나는 XX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어릴 때부터 줄곧 간부 사업을 해 왔으며, 또 한개 시에서 단 한사람 뽑는 선발에 당선 되여 국가 XX 출판사 특약 편집, 또 간부로 시청에서 남 부러워하는 사업을 하는 등, "기층 지도자"로 자부하던 사람 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와서 하나님을 영접한 후 나의 삶이 그릇됐다는 것과, 또 지난 모든 것을 '오물 버리듯'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더하고 신앙을 더 연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깨끗하고도 큰그릇이 될 수 없음을 느낍니다. 변화된 바울 사도처럼 진정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열매맺는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공부를 꼭 더해야 한다는 것이 사명으로 안겨 옵니다.

2. 북방 사역의 수요가 원하는 바입니다.

미국, 한국에는 기독교 영적 지도자가 많고, 특히 L.A에는 300여명의 목사님이 남아돌지만, XX 나라나 북한에는 반대로 기독교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

가 매우 적거나 어떤 지역은 없습니다.

저의 한가지 비젼은 목회와 더불어 신학교를 세우고 XX 나라와 북한 복음 화를 위한 당지의 기독교 지도자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나 본인이 당지 사람이고 또 나라의 정책 허용 면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하고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3. 복음사역중 안전에 유리합니다.

저는 원래 XX이고 또 "기층 간부"로 활약했으므로 일정한 당지사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공개적으로 사회 복음 화에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내가 "외국 기독교에서 공부했고 또 목사가 되어(가령)가도 정부측에서 잘 승인하지 않을뿐더러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선 몸이라,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의 열매 없이 거저 순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XX 나라에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 XX 교육자가 되면 나라에서 보호하며 무릇 'XX이 나빠도' 잡지 않습니다.

4. 당지인으로 신앙 서적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XX 나라에는 신앙 서적을 쓰는 일꾼이 매우 희소하거나 XX 지방과 같은 많은 지역이 공백점입니다.(정부의 제한 정책이 있으므로 교회에서 교재,잡지, 신문등의 형식으로 만들 수있음) 특히 외국으로부터 신앙 서적이 들어가는 것은 원칙상에 엄금입니다. 신앙 서적들은 성경을 배우며, 성도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보충 량식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국가에서 경영하는 XX출판사 특약 편집원으로 글도쓰며 일 하였댔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던 원래의 "오물같은 것"들을 다버리고 "새포도주를 새 푸대에 담아" 신앙 글을 쓰므로서 북방의 복음 화에 공헌하고픈 비젼이 있습니다.

5. 신학 공부를 위한 자신의 결의와 투자.

저는 선배님들이 있는 이곳에 와 공부하기 위해 3차례의 실패를 경과하며 끝내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학교와 교회를 아 왔습니다. 또 비행기에서 내린 당일날로 총장님을 만나고 책상에 앉아 신학 공부에 임하였습니다. 꼭 공부 더하겠다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졌었지요. 저는 지금 학교와 교회의 장학 보조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맘껏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가정이(미안한 말이지만)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하여 X딸라를 투자하면서 학교를 찾아 왔습니다. 제가 만약 신앙인이 아니고 사회인이 였다면 XX 나라에서 온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는 큰 금액, 즉 가정의 재산을 털다시피 엄청난 돈을 쓰며 신학교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공부와 생활 그리고 가정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발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학문을 닦아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1994년초) 미국 L.A.에 들어온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돈을 벌어 몇 만 딸라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십여만 딸라를 모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머저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달갑게 이 "머저리" 길로 나갈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진리의 길이고 그들을 포함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입니다.

존경하시는 여러 신앙 선배님들!

바라건데 저를 "푹 익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현지에 보내 주십시오. 나는 꼭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총장님이신 임동선 목사님께서는 "지도자 영성" 과목 시간인 금년 11월 10일 저녁 6시 10분에 (나의 마음속에 있던 말 이여서 노트에 기록함)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 키워도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양 보다는 질이 중요하지요...". 계속하여 들려준 "아르헨티나 목사 한 명을 배양하기 위하여 미국 목사가 가서 10년을 가르쳤다" 는 이야기는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여 오늘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넘게" XX 학위 공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이 곧 힘이다"라는 배움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져서 선교와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미 "빚진 자" 입니다. 큰 빚은 하나님께 진 빚이요, 작은 빚은 신학교와 교회, 그리고 여러 신앙 선배들께 진 빚입니다. 저는 이 큰 빚, 작은 빚 다 갚으려고 합니다. 이 "빚을 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내게 화가 있으려니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완전히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최근에 저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천년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였다면, 오늘 내가 2백만 XX의 사도가 될 수 없단 말인가?(물론 너무 높은 표준에 걸고 두려움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이 보잘것없는 "빚진 자"가 좋은 환경에서 조금더 빚을 지게 허용해 주십시오. 좀더 도와 주십시오!. 좀더 키워 주십시오!. 언젠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나설 때부터 이 빚을 갚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것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한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석달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나의 행동을 복종 시키겠습니다 신앙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충고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선교사 최 민 올림

1999년 3월 6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 : 시편 56 : 1~12

박 재 민(B.A)

> **문제는 분노하는 것보다 왜 분노했는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신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같다. 성숙한 사람과 어눌한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분노하는 감정으로 죄책감을 갖는 것부터 자유하자. 그리고 왜 내가 그 상황에서 분노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10%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을 존중하자.**
>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10%이지만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v.7 하나님도 분노하신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다양하다.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느껴진 감정은 분노였다.

한 번은 주일 저녁에 교회를 돌아보며 문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물품들이 이리 저리 나돌아다니고 있고, 교회 주변은 어린이들이 장난하고 난 뒤 그대로 두고 집으로 가서 말이 아닐 정도였다. 교실은 교실대로 엉망이고, 부엌은 부엌대로 엉망인 것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자기 집같으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를 내거나, 노를 발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질 않다.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있으면 당연히 아내의 마음까지도 살얼음을 걷게 만든다. 그러다가 그 마음을 아내에게 퍼붓기도 한다. 참으로 미성숙한 삶의 태도다.

헨리 나우웬은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중에서 대 분분이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해결된다."라고 했다. 분노하는 감정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가운데 분노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 받았기에 분노하는 성품 역시 우리의 속성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역시 하나님의 속성중의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만 깨달아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원함을 느낀다.

강준민 목사님의 말씀가운데 "분노하는 감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그 물고를 터 주느냐에 따라 사람을 파괴할 수 도 있고, 섬기는 귀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도 있다."라고 했다.

문제는 분노하는 것보다 왜 분노했는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신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같다. 성숙한 사람과 어눌한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분노하는 감정으로 죄책감을 갖는 것부터 자유하자. 그리고 왜 내가 그 상황에서 분노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10%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을 존중하자.

그리고 10%만이라고 사랑하는 마음가운데 주일 저녁 교실을 정리하자. 그래도 언젠가는 교회학교가 잘 정리될 때가 있을텐데 그 때까지 10%의 사랑의 감정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분노함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지혜로울 것 같다.

어떻게 10%의 사랑의 감정을 분노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한꺼번에 모든 부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한계다. 먼저 Joyland방부터 시작하자. 주일 저녁 문단속할 때 기도하자. 교회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세련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10%이지만 한 발자국

을 내딛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v. 3,4,10,11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분이다.

전에 미국 교회에 출석하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리고 장님인 미국 목사님이 훈련된 개를 의지해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면 찾는 곳이 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 그리고 은행의 도움을 입는다.

리포트를 준비할 때면 언제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적절히 선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적절한 보조기구나 도움을 받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 속에 놓여있을 때면 어떻게 해야할까? 영적인 침체 속에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고, 문제가 꼬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아무리 사람을 만나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손길이다. 하나님은 나의 최후의 보루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다.

자전거를 배울 때이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왜 이리도 무서운지. 그러나 아버지가 뒤에서 붙들어 준다는 것을 알 때면 한 번 도전해 볼만하다.

몇 번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자전거를 타지만 얼마 지나면 아버지의 손길 없이 이리 저리 공원사이를 지나다닌다. 이제는 자전거타는 것이 자유롭다.

홀로 있을 때에는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갑자기 무엇인가 나올 것같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라면 신나는 모험이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가장 힘든 것중의 하나는 깊은 물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 갑자기 물위로 하나 둘씩 떠오를 때다. 이것 저것을 내려 누르지만 속수무책이다. 문제를 직면하길 두려워해서 감춰두었던 것들이 떠올를 때면 어느새 몇 배의 문제를 달고 올라온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없이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나의 내면에 잠재되어진 쓰레기들을 치울 수 없다.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들은 언젠가는 냄새가 나서 표면으로 떠오른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두운 창고로 함께 내려가신다는 깨달을 때 용기가 생긴다. 문제를 벗겨낼 담대함이 생긴다.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문제들의 베일을 벗겨낼 수 있다.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

그러나 한 번 배우고 나면 자유해진다. 원숙해진다. 인생의 문제 역시 한 번 껍질을 벗기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어두운 창고로 내려가면 모험이다. 좋은 인생의 경험이다. 자전거에서 차(auto)로, 어두운 창고에서 깊은 동굴을 탐험하는 탐험가로 성장한다. 인생의 깊은 어두움은 그 어두움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어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헨리 나우웬의 말대로 어차피 "기독교 사역이란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는 섬김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인간의 문제의 깊은 곳을 여행해 본 사람만이 그 깊은 곳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감춰두고 싶은 비밀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까?

언제까지나 지저분한 옷을 침대밑에 감추는 어린아이와같은 모습을 버리자.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문제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위해 기꺼이 문제를 직면하는 모험을 즐기자. *

본문 : 시편 1:1~6

이 미 랑(B.A)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황 성 은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 하나님 발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생의 참된 과실을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
-복 받는 길과, 망하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 자신 발견:

지난날 -복있는 삶의 바른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채- 세상의 보이는 것들에 의한 자랑들만이 진정한 복 인양 착각하고 그것들을 좇아 울고 웃었던 나였다. 인간의 정욕으로 사랑하고 사치하며 물질로, 이생의 자랑으로, 행복을 채울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연단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 하신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평화의 열매들 갖가지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과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 왜 내게 가장 가까운 남편과 딸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행동 -참지못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하는 것인지? 먼저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를 전한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오해로 나 스스로와 가족들을 실족하게 할 때가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답답하고 주님께도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면서도 말이다. 이러한 내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내면세계를 채우고 다스리는 훈련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함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내게 주시는 교훈과 명령: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위해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기위해 내게 주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자. 남의 티를 보지말고 자신의 들보를 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딸의 잘못된 습성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으로 짜증내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안아 보자. 학교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내가 가진 어떤 선입관을 비우고 배우고 사랑하는 자세로 대하자. 이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지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구절 씩이라도 외우고 깊이 깊이 묵상하므로 그 주시는 뜻을 생각하고 실천하자.

♣ 기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게는 죄의 길로 좇아 가려는 죄된 습성이 있아오니 성령님께서 항상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행여 오만한 모습이 남아 있거든 다 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닮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를 읽고

조성운 (M.Div.)

신학교 공부를 핑계로 많은 책을 읽지 못 했지만 이 책은 내가 이 가을에 접한 참으로 귀중한 책이었다. 학과공부, 숙제, 시험 등등에 떠밀려 신학교 공부를 하는 지난 이년간 나는 신앙생활을 위한, 아니 삶의 정서를 위한 책을 거의 접할 수가 없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메마를 대로 메마른 나의 가슴 깊숙한 곳에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넣어준 느낌, 다시 말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기쁨을 얻었다.

이 책은 먼저 나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목회자는 목사이고 지도자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구령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구원받은 영혼이다. 내 영혼과 내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변의 권유나 막연한 동경 내지는 사회적 야망이나 책임 등으로 목회를 시작한다면 그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목회가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도 스스로의 확고한 신앙의 토대 위에 출발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크리스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시도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방법은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크리스챤들에게는 산소와도 같은 것이다. 기도가 없이 크리스챤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챤은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 만다. 더더욱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역을 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도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된다. 목회자에게 가해지는 사탄의 세력의 그 어떠한 저항도 기도로 물리칠 수 있게 된다. 목회자의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직접 통로가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솔직하고 겸손한 것이어야지 경망스럽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회자는 공중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려서 해야 한다. 무례하고 상스러운 표현은 절대로 삼가야 할 것이다. 가급적 고상하고 품위 있는 말들을 써야 한다. 공중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너무나 아첨적인 미사여구를 반복하는 것은 기도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명령적으로 하는 기도, 너무 긴 기도, 내용이 없는 기도 등도 공중 기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자가 진지한 자세로 기도했을 때일 것이다.

기도는 목회자에게 중요한 사역의 하나인 설교의 뿌리가 된다. 설교는 살아 계신 하

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의 재료가 풍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건전한 교의가 풍성하게 담겨져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설교에 구원의 복음이 빠진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가 될 것이고 그 설교는 듣는 영혼들을 어둠의 길로 잘못 인도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는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그리고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설교해야 한다. 판단력, 상상력, 기억력, 웅변술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는 가능한한 싱싱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설교자가 많은 준비를 하고 풍부한 재료를 사용했을 때 그 설교는 내용 있는 설교가 될 수 있고 그 가르침은 명료해질 것이다.

설교가 아무리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청중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청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바른 선택이 또한 중요하다. 사실 설교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설교에 연결시켜 받아들여야 한다. 주일 하루의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는 나머지 엿새를 보내야 한다. 적절한 본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기도하는 것이다. 설교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설교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준비한 설교를 자신에게 속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청중들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설교의 초점을 청중들의 약점에 맞추어 그들을 꾸짖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의 지적은 가급적 간접적인 것이 좋을 것이다.

신앙은 영적 전투이다. 설교자는 그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이 지닌 표면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심오한 영적 진리까지도 찾아내야 한다. 영적인 해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영해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심해야 할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부조리한 영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든지 음란한 주제를 사용하여 영해를 하려는 것 등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 영해를 잘못 하였을 때 청중들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신화나 허구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설교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교자의 음성은 중요하지만 일차적인 문제는 아니다. 자신의 음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노력하여 고치도록 해야 한다. 설교자는 목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음성을 공들여 가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러 가성을 내거나 변성을 해서는 안 된다. 설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부러 톤을 높이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설교의 내용과 음성은 조 성 운 일치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과 일치하는 주제를 선택해야 하고 그 주제를 뚜렷하게 정리하여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가급적 즉흥적인 설교보다는 준비된 설교가 좋고 서론은 될 수 있는 한 짧아야 하며 설교 중 중언부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흥 설교는 평소에 많은 준비를 해 두어야만 가능하다. 주제 선택을 바로하고 평상시에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영웅은 고독하다는 말이 있다. 목회자는 겉보기에는 화려할 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따르기 마련이다.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목회자의 위치는 고독한 자리이다. 정신적인 공허는 육체적인 허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후견자는 하나님이다. 목회자가 영적인 전투에 진솔하게 매진하다 쓰러지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목회자는 현실의 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회는 하늘의 보상,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자신의 영생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고독하게 달려가는 끝없는 경주이다. 목회는 일종의 직업이지만 세상의 다른 직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목회자는 항상 목회자라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직업에는 비번이 있지만 목회자에게는 비번이 없다. 그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당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목회자이다. 이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랑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는 붙임성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가 단 위에서 말로 하는 설교보다는 단 밑에서 몸으로 하는 설교가 더 효과적이고 위력적이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랑은 목회자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는 스스로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친절하게 상대해야 한다. 목회적 신념에 대해서는 강한 자기 주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의 전달자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 목회는 억지로 하거나 공명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스스로의 몸과 영혼에 대한 정열적인 사랑은 어렵고 험난한 목회의 길을 헤쳐 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은 바로 목회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끄는 초석이 된다. 하나님과 목회자 자신, 그리고 그가 돌보는 성도의 삼위가 사랑으로 일체가 될 때 그 목회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넘쳐나는 사랑의 향기는 이 세상을 이끄는 지침이 될것이다. *

갈릴래아 사람의 그림자

황 성 은 (M.Div.)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설로 만든황 성 은 이 책을 통해 느낀 것은 새로운 이야기 형식을 통하여 독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킴으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또 예수님이 사신 당시의 삶의 정황으로 돌아가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말하여 주는 것 같다.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기 위해 과거의 상황을 현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현실감을 주고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겪고있는 내적이고 외적인 경험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주인공이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실제적인 만남의 상황이 없이 독자들에게 상상하게 함으로 상징적인 만남의 효과를 주고 그 의미를 전달하여 주는 이야기 형식의 소설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소설은 소제목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예수에 관한 신학적 연구와 문학적인 인식을 연결시켜 놓음으로서 사실과 허구의 조화를 통해 저자 자신이 새로운 문학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독특한 것은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예수에 관한 역사적 인식과 문학적 인식에 관해 말하고 있고, 독자들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저자가 문학적인 내용과 상상력을 동원해 줄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 독자들에게 생동감을 있는 상황 전개를 통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예수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문학적인 접근을 통해 예수의 생애와 교훈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학문적인 방법보다 더 큰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 형식의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참다운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저자가 해 주고 있다. 저자는 학문적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 전달 방식을 통해 상상력을 뿐만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야기 형식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독자인 내 자신의 시각과 사고방식에 맞추어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고 볼 수 있게 하며, 이것을 통해 저자의 의도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독자와의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므로 과거와 현재의 관계와 시간적 거리감에 대한 의미,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참된 뜻과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질문과 응답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이 소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특히 역사적 연구 의의가 과거와 현재를 상호 밝히는 작업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으로 독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의식과 성찰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맺음을 한 것은 독자들 스스로가 진리에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고 진실을 발견하여 보다 넓고 깊은 견해를 가져 저자와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저자와의 대화 역사적 예수에 관해 문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이 소설을 저자가 기록하여 복음을 나타내고, 제시하고자 하지만 과연 이러한 시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적인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복음의 메시지가 제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일관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수난을 통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이해할 것 같지만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 자체를 문학적 표현으로 완전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역사적인 것과 문학적인 면을 결합하여 표현한다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 주해를 첨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방법이 나와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저자가 왜 신학적, 학문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야기 형식을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소설을 검토해 볼 때 외적인 것 외에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역시 예수님의 삶을 바르게 표현하자면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저자가 역사 자료들을 문학적으로 처리하여 꾸며낸 이야기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나치게 독단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시대착오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저자는 일인칭을 사용하여 이 소설이 역사적 서술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도록 고수하고 있지만 이 소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면 더욱 좋은 관점에서 독자들이 볼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흔적을 좇아가면서 연구하는 모험은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파헤쳐 밝히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와는 다른 주제로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을 하게 하였다고 본다.

또한 저자는 안드레아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전개하여 예수님의 독특성을 많이 희석시켜 복음의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물론 저자의 말대로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 소설의 구성된 줄거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경험들을 토대로 한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한 것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잘 못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앞서게 된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형식의 역사적 연구를 시도한 저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신학적이고 학문적 연구에만 관심을 가졌던 나에게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독자들에게 넓고 깊이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팔십에서

육십에서는 해마다 늙고
칠십에서는 달마다 늙고
팔십에서는 날마다 늙고
구십에서는 때마다 늙고
백세에서는 분마다 늙고

다음은 적연(寂然)히 말이 없다.

학교소식

◉ 1998년도 가을학기 학술세미나

1998년 10월 8일 (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본교 대학원장이신 이정근 목사님을 모시고 "현대목회 입장에서 본 칼빈과 웨슬레의 구원론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Soteriology of John Calvin and John Wesley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mporary Ministry)라는 제목으로 본교 채플에서 본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동양선교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이정근 교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론에 대해 기존의 학문적인 접근이 너무 이론적인 것에 치중한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신학도 목회현장의 검증을 거쳐야함을 강조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이 교수는 구원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구원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의견을 자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서로 배타적인 견해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전개 해갔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하여 그동안 큰 간격이 벌어졌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그리고 칼빈주의와 웨슬레주의의 종합적인 이해를 제시했다.

그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제 구원의 과정을 획일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엄밀히 말한다면 구원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은혜의 체험이 사람마다 다른 것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현대의 목회자일수록 영혼구원의 과정을 획일화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하겠다. 현대사회가 무섭게 다양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더 그렇다."

◉ 학생회 산상기도회

1998년 11월 5일 (목) 오후 7시부터 새벽 1:30 까지 아가페 기도원에서 학생회 주최로 산상기도회가 열렸다.

약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1 부에는 예배시간을 2부에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간증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원하여 간증을 함으로 더욱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제 3 부에서는 본격적인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헌신을 재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기도제목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가졌고 특별히 선배들이 새로들어온 신입들을 위해서 일대일로 앉아서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후배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선배들이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앞으로 자신의 비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나라와 민족, 학교, 교수님들, 선교사들, 그리고 건강이나 어려움중에 있는 학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이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며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 학생회 헌신예배

1998년 11월 8일(주일) 오후 4시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본교 학생회 헌신예배가 드려졌다.

임동선 총장님께서 "확실한 소명감"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한번 학생들에게 소명감이 불타오르도록 뜨겁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영력, 지력, 덕력, 체력을 잘 다듬고 키워서 앞으로 21세기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셨다.

자신을 다버리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역자의 힘의 원천임을 다시한번 강조하셨다.

특별히 이 헌신예배를 기하여 동양선교교회 각기관에서 장학금을 전달함으로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의 시간이 되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은 다시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것을 다시한번 결단했다.

◉ 장학금 전달

동양선교교회 각 선교회에서는 매학기 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학기에도 학생회 헌신예배 시간을 통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디모데 선교회, 여호수아 선교회, 바울 선교회, 모세 선교회, 에녹 선교회, 남상락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한나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리브가 선교회, 사라 선교회, 안나 선교회, 여상락 선교회등의 기관에서 장학금을 보조하였다. 특별히 본교 이사이신 김진호집사께서 97년 3월 30,000불의 장학금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에도 4,000불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신학교 장학사업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 주정부 감사

1998년 12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주정부 교육국 감사가 있었다. BPPV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 가 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로 이관되면서 주정부 자체의 인력부족과 관할관청 업무이전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계속 연기되었던 주정부 감사가 결국 이날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학사교무 행정 및 학생들의 권익보호과 계약관계의 이행여부 및 재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었다. 학교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학생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다. 앞으로 본교는 AABC (Accrediting Association of Bible Colleges)가입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개강부흥회

1999년도 봄학기 개강부흥사경회가 남가주 동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상구 목사님을 모시고 학교 채플에서 1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은혜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상구목사님은 "살아있는 밀알 이라야 죽을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구원에 대한 도를 확신있게 전해주시면서 앞으로 목회와 선교사역을 감당할 신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실한 기초와 체계를 세워 주심으로 앞으로의 사역에 큰 밑거름이 될 수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 그리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 신입생 환영회 및 교수소개회

1999년도 1월 28일 (목)에는 신입생 환영회 및 교수 소개회가 채플실에서 있었다. 금번에 1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12명의 학생이 금번학기에 등록하였고 한 학생은 여름학기부터 그리고 한 학생은 한국에 있으므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금번학기에도 하나님께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신입생들을 많이 보내주셨다.

이날 오후 4시 부터는 신입생 오리엔체이션이 먼저 있었고 6시 부터는 재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신입생 환영 파티에서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경험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테이블과 오색실과 화려한 풍선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다채로운 순서들이 처음학교에 들어와 한 가족이 된 신입생들에게 큰 기쁨과 격려의 시간이 되었다.

이날 금번학기에 가르치실 교수님들도 소개되었는데 금번에 본교에서 처음가르치는 교수님들로는 히브리서의 김종경교수님, 교회성장학의 이준재 교수님, 교육학 개론의 박경순 교수님등 이시다.

◉ 학기시작

1999학년도 봄학기가 개강부흥회와 신입생 환영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총 14명의 입학생중 12명의 신입생이 금번학기에 등록하여 약 70 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금번에는 한 반에 30명이상이 등록한 과목이 2개나 있었고 다른 반들도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여 수업의 열기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금번에 설강된 과목과 교수님들은 히브리서에 김종경교수, 성서헬라어 II에 우상범 교수, 교회성장학에 이준재 교수,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에 강준민교수, 신약의 배경연구에 오기열교수, 성령론에 김성원교수, 신구약개관에 김영배교수, 설교학에 임동선교수, 철학개론에 조경현교수, 선교신학에 이영기교수, 기독론에 백운주교수, 소선지서에 김진광교수, 교육학 개론에 박경순교수, 사도행전에 남종성교수, 그리고 ESL 교수에 Shelley Mott 교수등이 심혈을 다하여 가르침에 임하고 있다.

특히 매일 수업이 있을때마다 기도후원회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있고 서로의 친교를 나룰 수 있는 시간으로 정착을 해 가고 있다. 자원해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공지사항

◉ 등록금 정책의 강화

학교의 발전과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주정부의 학위수여인가 규정에따라 다음학기 즉 1999년도 가을학기부터는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같이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우선 학교안내서(98/99학년) P. 67에 있는 "등록금 납부절차" 난을 참고한다.
2. 등록금 미납자는 99년 가을학기부터는 학과등록을 할 수 없다.
3. 새학기 등록시 전액 납부가 어려운자 (학부 12학점 이상, 대학원 9학점이상)는 학교 서식에 따라 등록금 납부 분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무처의 확인을 받는다.
4. 등록금 미납자는 모든 장학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가 된다.
5. 등록금 미납자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등 일체의 제반 증명서 발급 및 확인을 불가한다.
6. 미납된 학기의 취득학점은 학부적에 기록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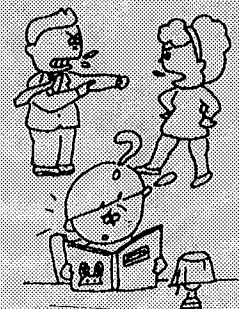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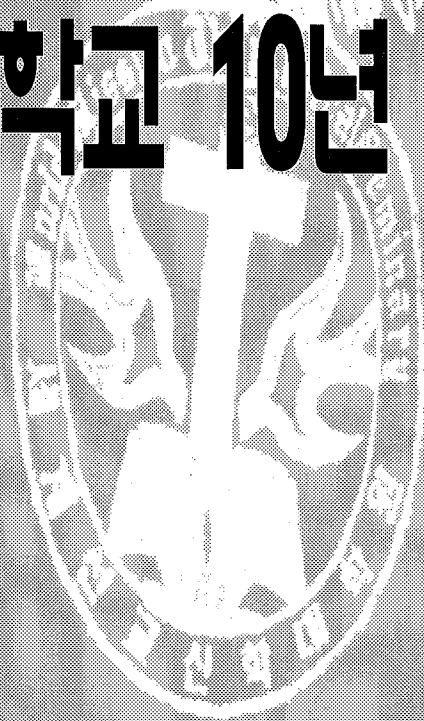
위의 사실들에 대하여 학생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무처에 상담을 바란다.

◉ 학생 채플 의무화

금번 학기부터는 학생 채플시간을 종전 4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고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매번 출석을 점검하여 한 학기 출석부를 작성하여 각과목 교수님들께 드려 성적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 사무실에 비치된 "예배 불참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비판앞에 상처받지 않기 위한 1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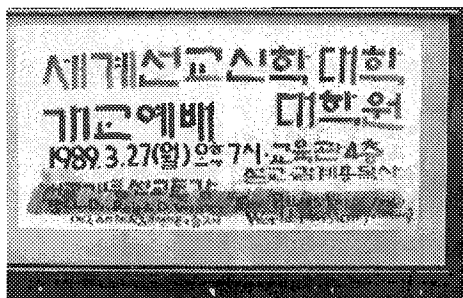
1.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말라.
2.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도에 가로채지 말라.
3.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을 삼가라.
4. 비판 앞에 스스로 비판하지 말라.
   ("그래 난 그런 인간이야" "난 별 수 없어" 등)
5. 비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못들은 척 화제를 바꾸지 말라.
6.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서슴없이 사과하라.
7. 그 비판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 말을 이해했음을 알리라.
   ("이러이러한 말씀이군요"하며 반복하라)
8.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정중하게 배운다는 기분으로 물어보라.
9. 농담이나 익살로써 넘기려 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게 된다)
10. 상대방의 비판을 나름대로 과장해서 듣지 말라

화보를 통해 본
월드미션대학교 10년 발자취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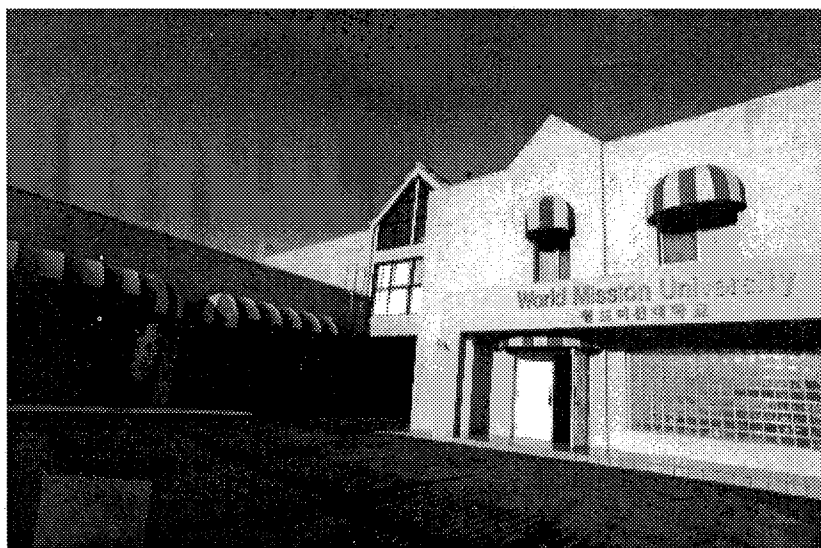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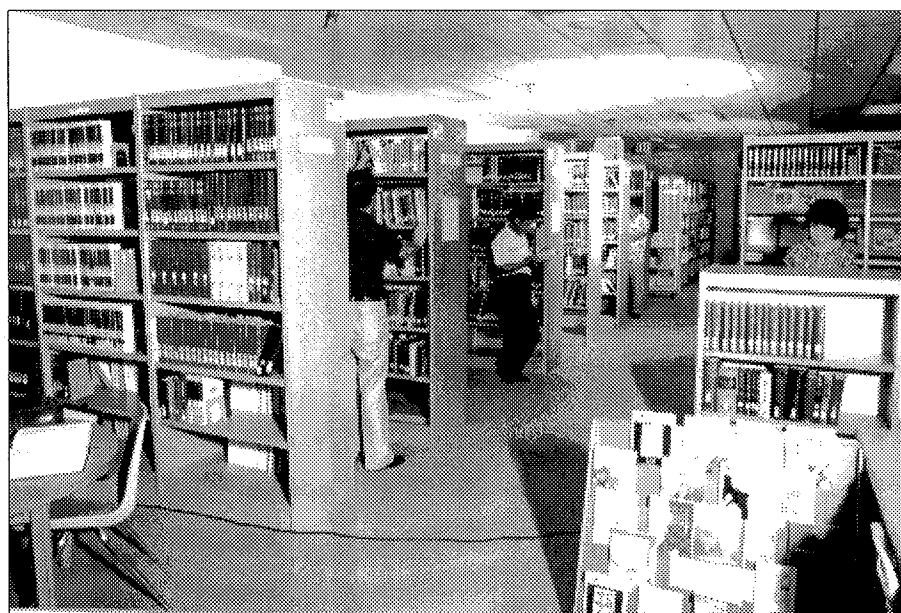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약사
(BRIEF HISTORY OF WMU)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설립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98. 11. 28	선교신학대학 이사회 창립총회
1989. 3. 1	임동선 목사 학장으로 취임
1989. 3. 1	이원희 목사 학감으로 부임
1989. 3. 27	신입생 32명으로 본교 개강하고 Donald A. McGaveran 박사 초청 개교기념 특별강좌를 개최하다.
1990. 3. 1	학감으로 김기철 목사가 부임하다.
1991. 3. 18	신학석사(M. Div., M.A.) 가주교육국 인가를 취득하다.
1991. 9	Quarter제에서 Semester제로 변경하다.
1992. 1. 1	학감으로 이정근 목사 부임하다.
1992. 5	학교 교가제정하다. (임동선 작사, 박재훈 작곡)
1992. 5. 31	제1회 학위수여식 거행하다.
1992. 8. 18	대학 학부 인가 취득, 이에따라 학교 이름을 세계 선교신학대학으로 하고 대학원은 세계선교대학원으로 하다.
1992. 9. 27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대학원을 개교하다.
1993. 5. 10	미 이민국에서 I-20Form 발행을 허가하다.
1993. 6. 29	종합대학교로 개편하고 명칭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다.
1993. 12. 11	총장에 임동선 목사, 부총장겸 대학원장에 이정근 목사를 선임하다.
1994. 5	가주 교육국 정기감사를 받다.
1994. 5. 29	제3회 학위수여식 거행하다.
1994. 10. 9	목회학 박사 학위 주 정부 인가 취득하다.
1994. 1. 1	부총장에 박광철 목사를 선임하다.
1995. 3. 28	개교 6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다.
1995. 6. 4	제4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5. 9. 20	가주 교육국 확인감사를 통과하다.
1996. 3. 28	개교 7주년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다.
1996. 6. 2	제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6. 7. 2	동양선교교회와 미주성결교회가 신학교 공동운영에 상호 합의하다.
1997. 6. 1	제6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7. 6. 2	한국 목회신학연구원과 월드미션대학교가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하다.
1998. 6. 7	제7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다.
1998. 12. 10-11	주정부 교육국 감사를 필하다.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총장

임 동 선 박사

▲ 월드미션대학교 개교예배 안내판
(1989. 3. 27 개교)

▲ 월드미션대학교 교기

▲ 월드미션대학교 전경

◀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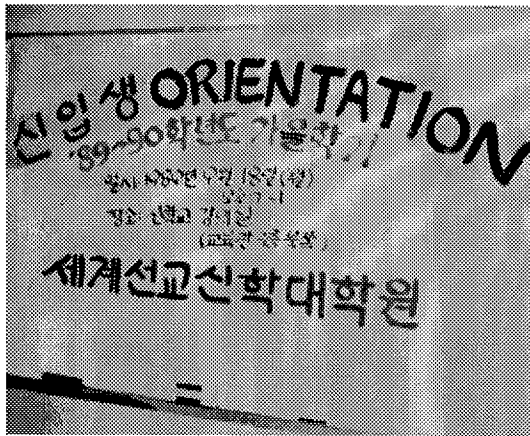
▲ 교명을 「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신학대학원」으로 변경하기 이전의 교명표지(1993년 이사회 총회에서 교명변경 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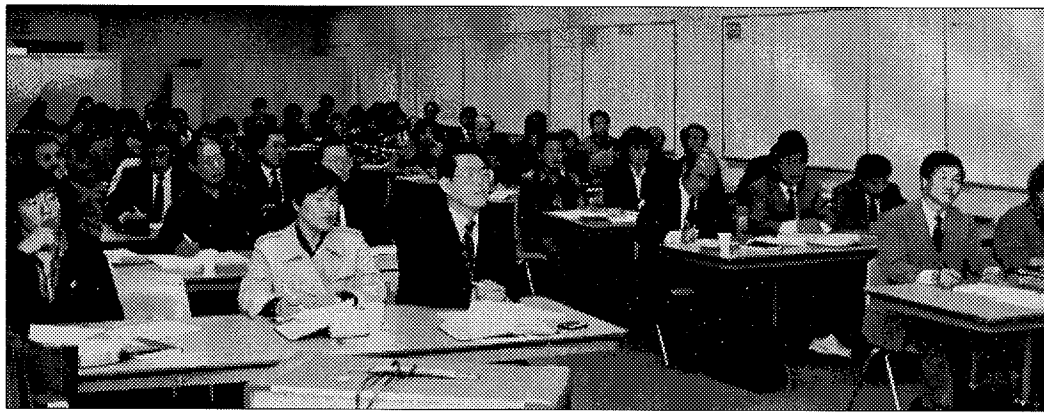
▶개교기념으로 선교특강으로 하고 계시는 Dr. Ralph Winter 교수와 통역하시는 이원희 교수 (1989. 3. 27)

◀개교예배시 설교를 하고 계시는 나성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과 학생 및 내빈들(1989. 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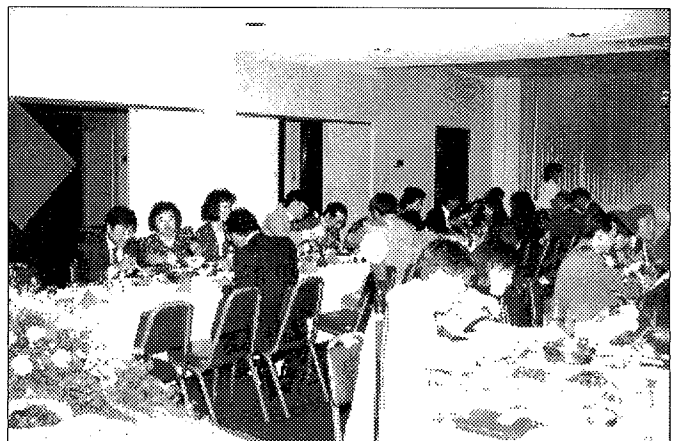
◀ 개교예배를 마친후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이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1989. 3. 27)

▶ 풀러신학교의 맥가브란 박사를 모시고 선교특강을 하고 있다. 통역에는 조갑수 교수님이 수고하고 계시다.

▲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임동선 총장님 (1990. 7. 30).

▲ '89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안내판

▲ '89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1989. 9. 18)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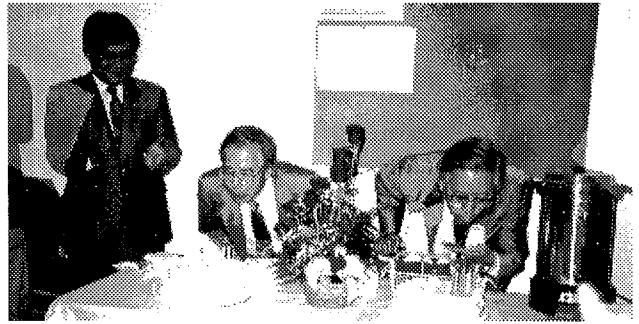
▲ 본교 제1회 졸업생들이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졸업생 만찬회를 갖다. (1992. 5. 30)

▼ 본교 제1회 졸업생 만찬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졸업생들. (1992. 5. 30)

▲ 제1회 학위수여식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풀러신학교의 대니얼 쇼 교수 (1992. 5. 1)

▲ 제1회 학위수여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있는 재학생들

◀ 미국, 일본, 남미, 소련, 중국등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1회 졸업생들 (1992. 6. 1)

▶ 조원하 선교사 목사 안수식 (1992. 6. 8)

▶「웨슬레 신학」 특강시에
촛불을 끄고 계시는
이정근 대학원장님과
조종남 박사님

▼ 조종남 박사님의 웨슬레 신학 특강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1992. 6. 15～26)

◀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 학생들

노방전도 후에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찰칵 ▶

▲ 세계복음선교 연합회에서 거행한 목사 안수식 (1992. 8. 16)

목사안수 후부생들과 부인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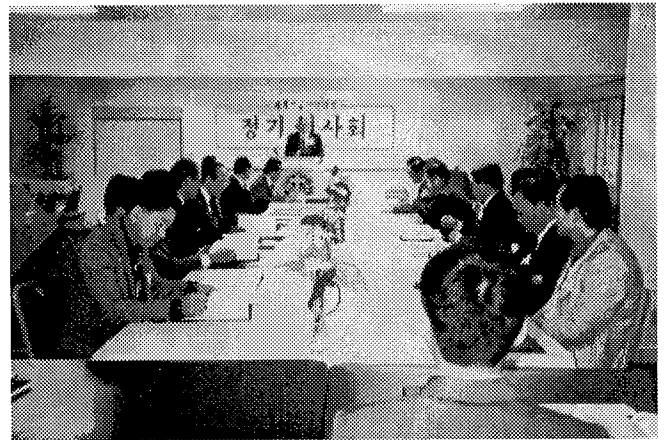
▲ 민경배 교수「한국사」특강 (1993. 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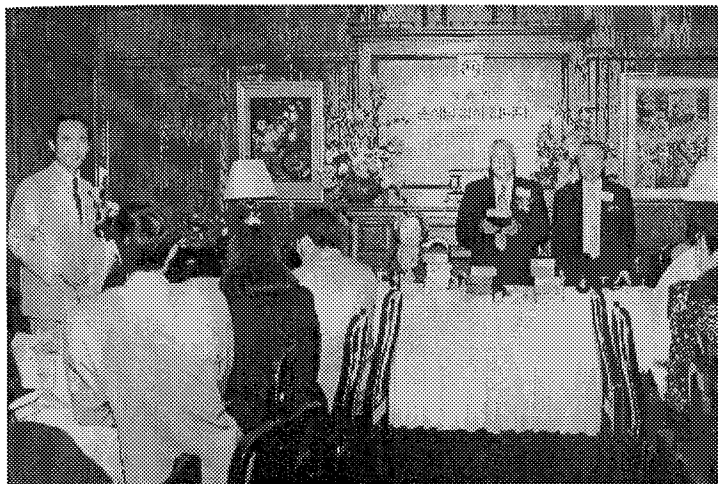
▲ 개교 4주년 기념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동선 총장님 (1993. 2. 29～31)

▲ 구 소련 노동자 대학교에서 역사적인 월드미션대학교 모스크바 분교 개교 예배가 열렸다. (1992. 9. 27)

▲ '93년도 가을학기 개강예배 (1993. 9. 1))

▲ 개교 5주년 기념으로 김의환 목사님을 모시고
신학공개 강좌를 열었다.(1994. 3. 24)

▼ 정기이사회에서 신학교에 발전을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이사님들 (1993. 12. 11)

◀ 임동선 총장님
레니그라드 선교집회시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과
함께 찬양하는 회중
(1994년 봄)

▶ 3회 졸업생(M.A.)
김영희 선교사 중국선교사 파송예배
(앞줄 오른쪽이 김영희 선교사, 1994년 5월)

◀제3회 졸업생 사은회 (1994. 5. 28)

▶ 제3회 졸업생 사은회에서
이정근 대학원장님과 사모님
(1994. 5. 28)

▼ 이태리 로마한인교회 밀라노 찬양선교단과
함께 러시아에서 (1994년 봄))

▶ 월드미션대학교 기도후원회 창립총회
(1995. 9. 26)

◀ 제3회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재학생
대표들 (1994. 5. 29)

▶ 황성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94년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1994. 8.29～30)

▶ 기도후원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1995. 9. 26)

◀ 총장 초청 이사 간담회에서
(1995. 3. 18)

▶ 96년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1996. 8. 26～27)

▲ 정기 이사회 총회 (1996. 12. 18)

▲ 제2차 신학생 후원을 위한 만찬회 (1996. 12. 11)

▲ 97학년도 봄학기 개강 부흥회에서 특송하고 있는 재학생들 (1997. 1. 2728)

▲ 월드미션대학교 운영을 성결교회와 공동으로 하기 위한 준비모임 (1996. 6. 12)

▲ 월드미션대학교와 성결교단이 공동운영하기로 합의서에 서명 (1997. 7. 2)

▲ 제2차 신학생 후원을 위한 만찬회에서 특송하는 재학생들 (1996. 12. 11)

▲ 안수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97년도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를 마치고 (1997. 8. 25~26)

▲ 월드미션대학교가 주관한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
(1997. 10. 18)

연합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월드미션 학우들 (1997. 10. 18)

▲
98년도 봄학기에 Dr.J Christy Wilson을 모시고 개강부흥회를 가졌다. 통역하시는 김영배 목사님과 함께 (1998. 1.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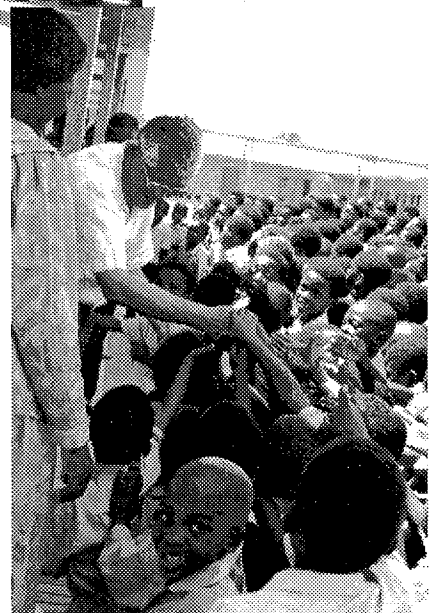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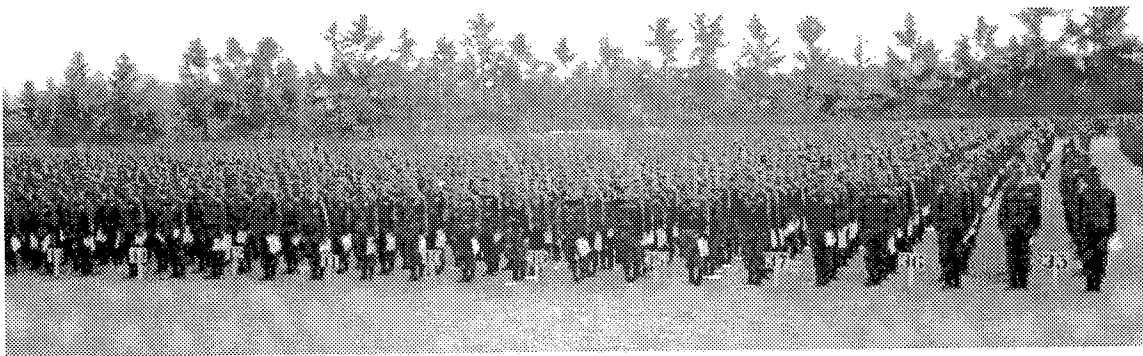
▶ 97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1997. 8. 28)

▶ 97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환영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교무차장 Paul Hertig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남종성 목사님 (1997.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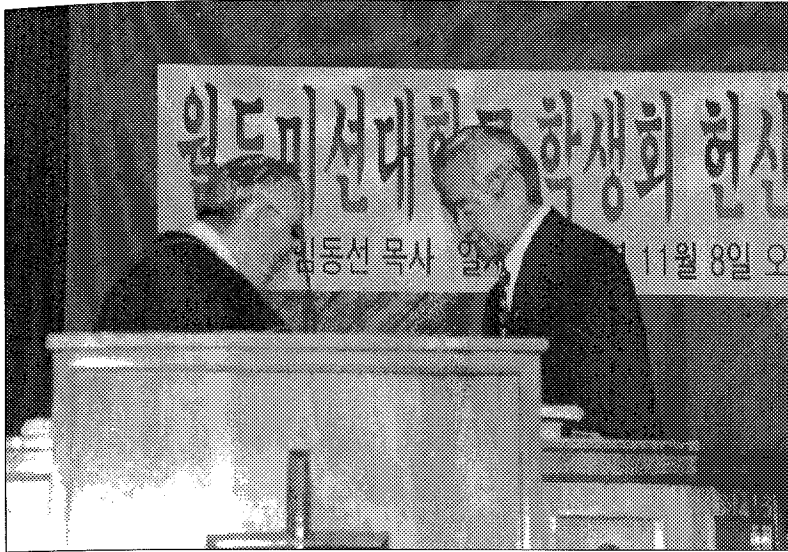
◀ 98년도 봄학기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1998. 1.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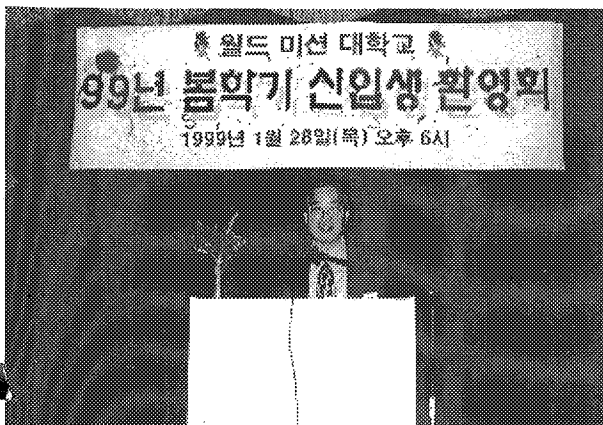
▲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주민 목회자들과 환담을 나누시는 임동선 총장님 (1998. 3. 7)

▲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하고 계시는 임동선 총장님, 오광찬 장로님, 이인검 전도사님(1998. 3. 7)

▲ 남아프리카공화국 Stilfontein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받기위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임동선 총장님은 식사기도를 하고 계시다. (1998. 3)

▶ 남아프리카 공화국 Stilfontein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하고 계시는 임동선 총장님 (1998. 3)

▲ 논산훈련소에서 장병들이 합동세례를 받기위하에여 앞서 함께 모여있는 장병들 (이날 6,005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1998. 10. 10)

▲ 논산훈련소에서 장병들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임동선 총장님 (1998. 10. 10)

◀ 1999년도 봄학기 개강 부흥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이신 김상구 목사님 (1999. 1. 25~26)

◀ 월드미션대학교 학생헌신예배시
동양선교교회 각 기관에서
신학교에 장학금 전달
(대표로 총무이사 이신
정문섭 장로님이 총장님께)
(1998. 11. 8)

▶ 99년 봄학기 신입생 환영회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신입생들
(1999. 1. 28)

◀ 99년 봄학기 신입생 환영회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정근 대학원장(1999. 1. 28)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학교소개

■ 월드미션대학교·신학대학원은 충성스러운 목회자, 소명에 불타는 선교사, 지혜로운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1989년에 개교하였습니다.

■ 본교는 캘리포니아주 교육국(BPPVE)으로부터 학위수여 인가를 받아(94310)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신학 대학교(원)입니다.

■ 본교는 동양선교교회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웨슬레 신학에 입각한 초교파 복음주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 본교의 졸업생들은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또는 미주성결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미주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역할 수 있습니다.

■ 본교는 7회에 걸쳐 1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남미, 유럽 등지에서 세계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 본교는 지성과 영성을 겸한 국내외의 우수한 교수진들이 강의하며 영어로 강의시에는 한국어 통역이 있습니다.

■ 본교는 코리아타운 중심부에 있으며 동양선교교회의 좋은 교육관 시설, 넓은 주차장 및 5만5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하여 I-20 Form을 발행합니다.

교수 및 강사진

임동선, 박광철, 이정근, 남종성, 김영배, 김진광, 안용식, 이영기 최선호, 조종남, 조경현, 조영근, 한승수, 허경삼, 우상범, 정석규, 강준민, 김형태, 조석환, 고남철, 여성훈, 유의영, 이기홍, 이상훈, 이윤주, 김성원, 편요한, 백운주, 김용창, Paul Hertig Daniel Shaw, Dean Gilliland, Earl Grant, Charles Van Engen 외 다수 (무순)

신입생 입학요항

1. **지원자격**: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선교, 목회, 또는 기타 기독교 사역에 불타는 소명이 있는 자.
2. **원서마감**: 시험일자, 개강일자 (본교 사무실로 문의)
3. **구비서류**: 1)입학원서 (소정양식) 2)추천서 3통 (소정양식) 3)사진 2매 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최종학교 성적증명서 6)개인 신앙간증서
4. **시험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어학시험 및 성경입학시험: 성경시험지침, 예제가 준비되어 있음)
5. **장 소**: 필기시험-본교 A강의실 면접-본교 사무실
6. **원서교부**: 본교 사무실 (동양선교교회 옆 제2교육관 2층) (개강 첫 주간은 개강 부흥사경회로 모임)

본교 장학금 제도

1)총장 장학금 2)성적 장학금 3)주은 장학금 4)선교 장학금 5)근로 장학금 6)지정 장학금 7)일반 장학금 등이 있으며, 또한 동양선교교회의 각 선교회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음.

특별히, M.Div. 과정의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음.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 한	지원자격
B.A.	성경신학과	126	4	고졸
M.A.	신 학 과	64	2	대졸
M.Div.	목 회 학 과	96	3	대졸
D.Min.	목 회 학 과	40	3	M.Div. 졸업+목회 3년

※비학위과정: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연구과정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수강 할 수 있으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Diploma)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본교 사무실에 오시든지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 주시면 입학원서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무실 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문의 및 연락처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4629, Fax. (323)466-7840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임동선 박사, Ph.D., D.Min.